

# 비대면 안심관광지 '무주 구천동 어사길'

한국관광공사, 초입부터 인월담·사자담·산양담·구천폭포·백련사까지 5km 구간 선정

무주군 설천면 소재 구천동 어사길이 한국관광공사 선정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이하 안심관광지 25선)'에 이름을 올렸다.

안심관광지 25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혼잡도가 낮은 관광지 중 바다, 섬, 계곡, 숲 등의 여름 휴가지다.

2020 가을 비대면관광지 100선'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구천동 어사길은 초입부터 인월담과 사자담, 산양담, 구천폭포, 백련사까지 5km의 이어지는 여정으로 숲과 계곡이 주는 정취와 그 안에서 얻는 만족감이 최고로 꼽힌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이현우 팀장은 "어사길에 와 보시면 비대면 안심관광지라는 명칭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올 여름 휴가는 무주구천동 어사길이 주는 자연속 여유로움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6월 교량과 데크로드, 계단,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어사길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구천동 33경 중 16경인 인월담부터 32경인 백련사까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어사길 복원사업은 세계적인 으뜸관광 무주 실현을 위해 쾌적한 관광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16년에 어사길 입구부터 안심대까지 3.3km 구간에 대한 탐방로 조성사업을 마쳤으며 2019년부터 산양담에서 백련사까지



무주 구천동 33경 중 23경 호탄암.

1.4km에 대한 복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편, 무주구천동 어사길은 인월담 일원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용했던 길로 오솔길과 돌계단은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길 곳곳에 옛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또 1960년대 최고의 명성을 떨쳤던 한성여관

터도 만날 수 있으며 구월담 근처 숲에는 무주 태생 김남관 대령이 극락정토를 꿈꾸며 9천개의 불상을 만들다 만 흔적도 남아있다.

안행어사 박문수가 이 길에서 구천동에서 이웃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자들을 벌하고 사람의 도리를 바로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져지며 신비로움도 자아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기 가족클래식 교육

군산예술의전당, 12일부터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아는 만큼 고고고!!(보고 듣고 즐기고)' 1기 가족클래식 수업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지역 문화기반시설 교육공간 활용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문화예술경험 등을 추구하고, 학교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공연장 콘텐츠 등을 통해 자신의 소질개발 노력과 가족, 친구들과의 문화 활동 속에서 유대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족클래식, 국악, 연극, 뮤지컬, 가족형 뮤지컬을 기수별 30명~40명씩 5기수 총 170명이 수강할 예정이며 기수당 4회씩 무료 운영한다.

1기 가족클래식 수업은 부모와 함께 공연장 관람예절 안내, 클래식 악기의 특징 알아보기 등을 수강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합창단인 '국립합창단(영화음악여행)' 공연 관람 및 연주자와의 만남을 통해 클래식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관람의 기회가 부족해진 관내 초등생들에게 거부감 없는 예술 감상교육을 제공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코로나 예방을 위해 수강생과 교사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필수, 발열자



입장제한, 교육장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기 신청은 6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관내 초등생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산=남현봉 기자

## 완주풍류학교, 유아 무료국악체험 '풍류야~ 놀자' 운영

7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

완주풍류학교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 중 하나인 유아 무료국악체험 '풍류야~ 놀자!'를 오는 7월 23일까지 운영한다.

8일 풍류학교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 8개 기관의 유아 300여 명이 참여한다.

유아 무료국악체험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전통성에 대한 멋과 흥을 알아갈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의 리듬과 비슷한 국악의 음색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제공하는 무료 체험이다.

약 40~50분 정도 소요되며, 연령별 신체로 표현하는 국악기, 전래놀이, 민요를 통해 한국 무용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1일 1회 1기관만 진행된다.



완주풍류학교 관계자는 "앞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세한 소식은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 생활문화 소모임에 최대 100만원 지원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일상 속 문화 나눔을 위한 '문화지원 공유 및 확산-섬마삼마 문화공간'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 소모임을 발굴·지원한다.

사업은 고창 문화시민의 재능, 취미, 지식 등 문화적 자원을 공간에 차곡차곡 쌓아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았다. 지역의 생활문화 주체들이 참여해 일상 속 생활문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연분야(음악, 연극, 국악), 시각분야(사진, 영상, 미술) 등 개인 또는 소모임 형태로 활동 계획을 세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

는 14일까지다.

선정된 팀(10개 팀 내외)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활동비가 지원되며, 영상콘텐츠 제작과 결과공유회 참여를 통해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의 주체로서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기반 마련이 될 것이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가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함께할 자원활동가 '소리천사'를 1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종합상황실, 공연장 운영, 행사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100여 명을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소리천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조직위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 소리천사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전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후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활동 시간 실적 인증이 가능하며, 자원봉사증 발급 혜택이 주어진다. 또 활동 기간 중 유니폼 및 ID 카드,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우수활동 소리천사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